

ASAN REPORT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여론연구프로그램

2018년 7월



Asan Report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여론연구프로그램

2018년 7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론연구프로그램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 소통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는 국내 여론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합니다. 또한 대중은 여론조사를 통해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여론연구의 산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여론조사와 고급 통계분석 등을 통해 국내 여론변화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여론 수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

김지윤

김지윤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선거와 재정정책, 미국 정치, 계량정치방법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Cognitive and Partisan Mobilization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 (with Jun Young Choi and Jungho Roh, 2015, *Party Politics*), “The Party System in Korea and Identity Politics” (in Larry Diamond and Shin Giwook eds. *New Challenges for Maturing Democracies in Korea and Taiwan*, 2014, *Stanford University Press*),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의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병하 공저, *의정연구*, 2013),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분배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2010),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 (*Electoral Studies*, 2010), 『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s』 (*Political Studies*, 2010)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MIT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지냈다.

강충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김길동

김길동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다.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역사와 국제관계를 복수 전공했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관심분야는 북한, 동아시아 정치이다.

목차

들어가며	07
I. 북미 정상회담과 주변국 인식	08
1. 주변국 호감도	09
2.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10
II. 북미 정상회담 평가	12
1. 북미 정상회담 평가	12
2. 북한의 비핵화	14
3. 북한의 합의 이행	17
III. 북미 정상회담 이후 주요 이슈	19
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19
2.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21
3. 향후 과제	22
나가며	25
부록	27

그림

[그림 1] 주변국 호감도	09
[그림 2]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11
[그림 3] 북미 정상회담 평가	13
[그림 4] 연령대별 북한의 합의 이행 전망	17
[그림 5] 대북 신뢰도: 대화상대로서의 북한	18
[그림 6]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21

표

[표 1]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북미 정상회담 평가	14
[표 2]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	15
[표 3] 북한 비핵화 예상 소요기간	16
[표 4]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하는 이유	19
[표 5] 연령대별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	20
[표 6] 연령대별 북한 및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	23
[표 7] 연령대별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의견	23

들어가며

2018년 6월 1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만남은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회담 요청을 수락한 3월 초(9일)부터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회담을 앞두고 치열한 북미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5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지만 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됐다.¹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반목과 대결로 점철됐던 70년 북미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두 정상은 1) 평화와 번영의 북미관계 수립, 2) 영구적·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 4) 한국전 미군 포로·실종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에 합의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이하 ‘6. 12 공동성명’)은 적대관계에 있던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이끌어낸 합의였고, 2005년 9. 19 공동선언(차관급 회담) 이후 13년 만에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컸다. 또 이번 회담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6. 12 공동성명은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Framework Agreement), 2000년 공동 코뮌니케(Communique), 2005년 9. 19 공동성명 등 과거 북한과 미국이 체결한 합의에 비해 그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이하 ‘CVID’)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조건부 중단을 언급한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닌 한국인은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 보고서는 6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전평을 분석했다. 회담 전후로 한국인이 북한, 미국 등 주변국과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살펴봤다. 그리고 북한을 대화상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과거와 비교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인의 대북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짚어봤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에 대

1.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부록의 [표 1] ‘북미 정상회담 일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북한(3.52→4.71)과 김정은 위원장(2.02→4.06)에 대한 호감도(0= 전혀 호감이 없다, 10= 매우 호감이 있다)는 크게 상승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도도 동반 상승했다(3.76→5.16). 한국인의 71.8%는 북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많은 한국인은 과거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 평화와 비핵화를 논의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비판하거나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회담 전(3월) 44.3%에서 회담 후(6월) 24.7%로 줄었다. 비핵화 시한도 4년 이상 짧게 전망했다(10.9년→6.5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북한의 북미합의 이행을 낙관하는 한국인도 62.6%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한국인의 대북 신뢰도와 관련이 있었다. 대북 신뢰도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던 2013년(10.7%)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것(54%)으로 나타났다. 4~5월 남북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5월 북한의 핵 실험장 폐쇄 등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도적 지지(72.3%)를 받았다.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긍정적으로 내다 본 한국인도 각각 83.2%, 76.7%로 다수를 차지했다. 2018년 초부터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한 전망이 밝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국인의 대북 인식이 개선됐지만, 북한에 적대적이었던 젊은 층(20대)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과거 북한의 무력도발 등을 경험한 젊은 층이 북한을 협력 상대로 인식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 북미 정상회담과 주변국 인식

호감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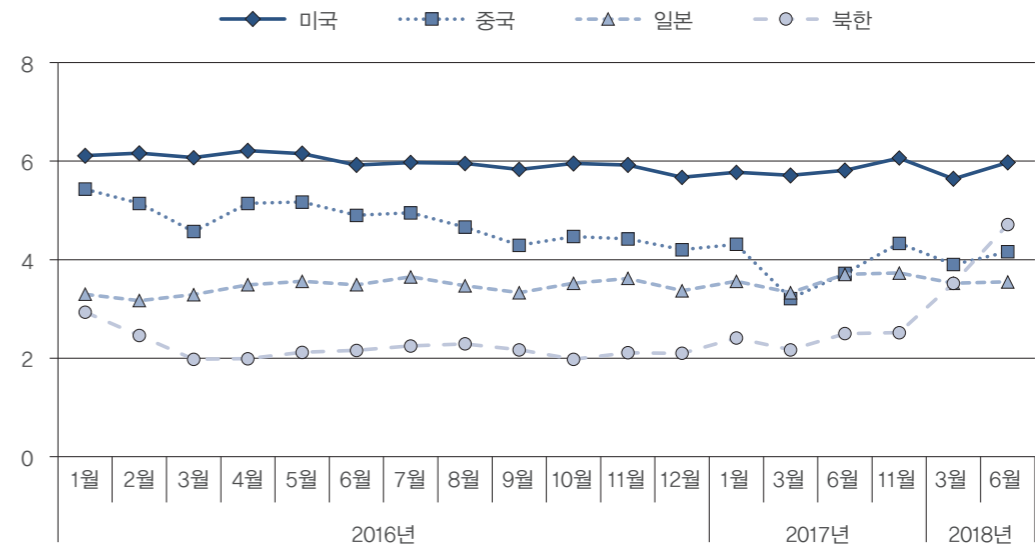
북미 정상회담 이후 주변국 호감도(0점= 전혀 호감이 없다, 10점= 매우 호감이 있다) 조사에서는 몇 개월 전만해도 상상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 북한 호감도가 일본뿐 아니라, 중국 호감도를 추월했다([그림 1] 참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달라진 한반도의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북한 호감도의 상승은 놀라울 정도로 컸다.

1. 주변국 호감도

2018년 6월 미국 호감도는 5.97점으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기록했던 6.06점에 근접했다. 2016년부터 5점대 중반 이상을 유지해 온 미국 호감도는 다른 주변국에 비해 안정적이었다. 2018년 3월, 5.64점으로 잠시 주춤했던 미국 호감도는 6월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공조에 대한 우려가 일부 존재했으나,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이를 해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6월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4.71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북한 호감도였다. 2018년 초부터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북한 호감도는 3월 3.52점으로 2014년 10월(3.09점) 이후 최초로 3점대를 넘어섰다. 이후 4~5월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6월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북한 호감도는 6월에도 3월에 비해 1.19점이나 상승해 4점대를 돌파했다. 북한 호감도가 4점대를 넘은 것은 주변국 호감도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래 처음

[그림 1] 주변국 호감도² (단위: 0~10점)



2.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6년 1월~2018년 6월). 2017년부터 주변국,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조사의 횟수가 조정되면서 2016년 매달 이뤄지던 조사가 비정기 조사로 바뀌었다. 주변국,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추이 해석에서 조사 간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만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언급됐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였다.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보수층에서도 북한 호감도가 4.32점으로 높았다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였다(진보 5.37점, 중도 4.34점).

짧은 기간 큰 변화를 보였던 북한 호감도에 비해 중국, 일본 호감도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2018년 6월 중국, 일본 호감도는 각각 4.16점, 3.55점으로 북한 호감도 보다 낮았다. 중국 호감도가 북한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201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중국 호감도가 3월(3.90점) 보다 소폭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간 북한 호감도의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이었다.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의 영향도 비교적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호감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변화가 매우 적었다. 북한의 변화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한국인이 많은 기대를 걸었던 북미회담에 일본이 소극적·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도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2.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2018년 6월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0점= 전혀 호감이 없다, 10점= 매우 호감이 있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도 상승이 매우 뚜렷했다. 먼저 6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4.06점)는 아베 총리(2.04점), 시진핑 주석 호감도(3.89점)를 모두 넘어섰다.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순위에서 거의 매년 최하위에 머물렀던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가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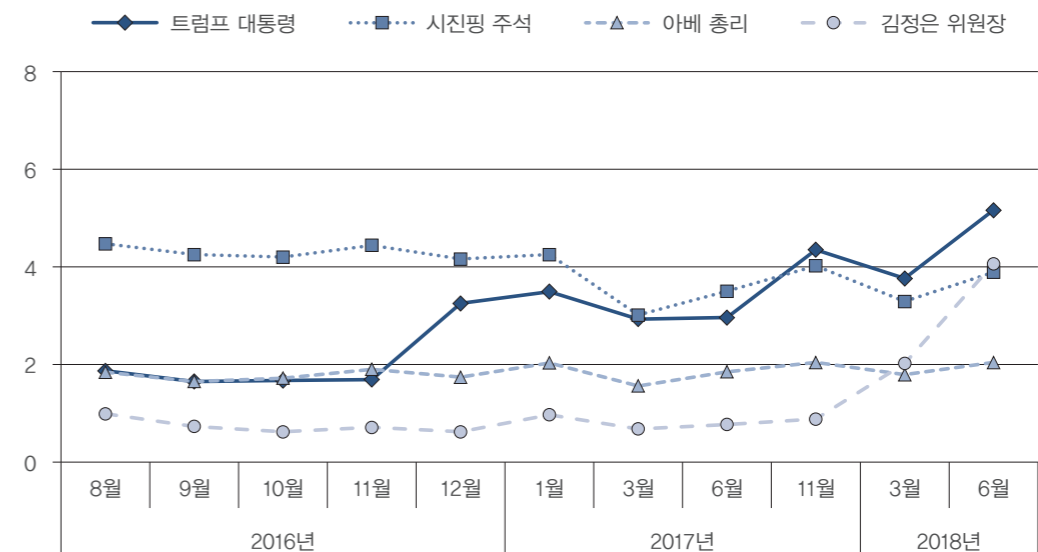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는 2017년 11월 0.88점에서 2018년 3월 2.02점, 6월 4.06점으로 연속해서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가 2017년 내내 1점 미만이었다는 사실과 큰 대조를 이룬다. 또 지도자 호감도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가 1점대 전후였던 점을 고려하면 더 놀라운 결과였다. 2018년 3월, 6월에 연이은 호감도 상승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부터 대북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화에 적극 나서면서 일어난 변화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 역시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5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인 5.16점을 기록했다. 2017년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등의 표현으로 북한을 압박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했던 시기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2018년 3월

(3.76점)과 비교해도 3개월 사이 1.40점이나 상승했다. 5점대에 진입한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등락이 있었지만,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그 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부각됐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됐기 때문이었다.

이와 달리,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 호감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 호감도는 2017년 11월 4.02점에서 2018년 3월 3.29점까지 하락했다가 6월 다시 3.89점이 됐다. 이는 한중관계가 좋았던 2014년, 2015년과 비교해 낮은 수치였다. 2017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한국인의 민심을 잃은 지 1년이 넘었지만, 그 여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아베 총리 호감도의 변화는 더 미미했다. 2017년 11월 2.04점에서 2018년 3월 1.79점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6월 다시 2.04점이 됐다. 이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를 북한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과 일본이 나름대로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북미회담 등 외교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림 2]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³ (단위: 0~10점)



3.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6년 8월~2018년 6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트럼프 후보’ 또는 ‘트럼프 당선인’으로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를 조사했다.

II. 북미 정상회담 평가

1. 북미 정상회담 평가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은 한국인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⁴ 북미회담 개최가 가시화된 지난 3월(21~2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54.9%)의 한국인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⁵ 이는 회담 전부터 북미회담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가 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당시에는 회담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이나 의제가 없었기 때문에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본 비율도 40.1%로 적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많은 한국인은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회담 직후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가 많았지만, 대다수의 한국인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71.8%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냈다고 했다. 성과가 없었다고 답한 비율은 21.5%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 갤럽에서 회담 직후(14일) 조사한 결과와 비슷했다. 여기서도 66%가 북미회담을 긍정적(‘잘 됐다’)으로 평가했고, 소수인 11%만 부정적(‘잘못됐다’)으로 봤다.⁶

추가로 북미 정상회담을 긍정,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살펴봤다. 북미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718명)는 52.7%가 적대국이었던 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났다는 점을 첫째 이유로 꼽았다. 두 정상의 만남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를 인상적으로 본 응답자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북미관계 정상화에 합의해서’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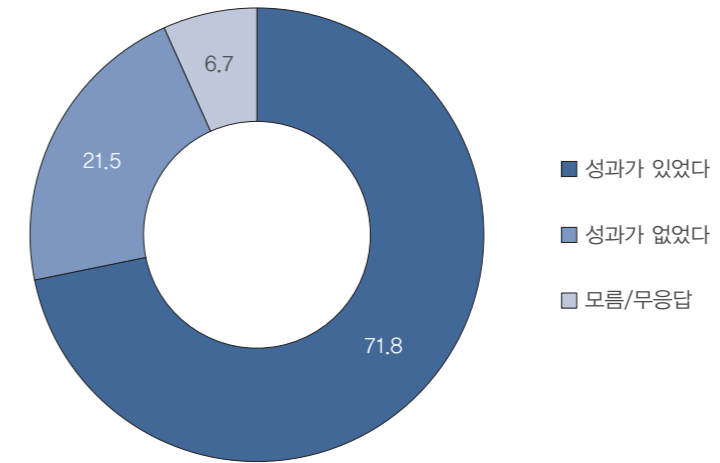
4. 이정현. 2018. “트럼프 기자회견 시청률 25.78%” 연합뉴스, 2018년 6월 12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2/0200000000AKR20180612159251005.HTML>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순간은 두 정상이 최초로 만나 악수를 한 장면이었다. 실제 국내 주요 방송(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채널 2사)의 실시간 시청률(합계)도 31.02%나 됐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대선 후보 TV 토론(3차) 시청률(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2사, 보도채널 2사)이 38.4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오전부터 생중계된 북미회담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8년 3월 21~22일).

6. 한국갤럽. 2018. 데일리 오피니언 제310호(2018년 6월 2주). 서울: 한국갤럽.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932&pagePos=1&selectYear=&search=&searchKeyword=>

[그림 3] 북미 정상회담 평가⁷ (단위: %)



‘첫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내놓아서’ 15.2%, ‘북미간 후속 회담 개최를 구체화해서’가 12.8%로 비슷했다. 한국인이 북미회담을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구체적 합의 내용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여진 두 정상의 만남에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북미회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215명)는 37.2%가 북핵 폐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회담 전부터 미국이 강조했던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북미회담 후속조치가 잘 이행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3.4%였고, ‘정상간 만남이 상징적 수준에 그쳐서’ 또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언급은 너무 급진적이어서’라는 응답은 각각 17%, 15.3%로 비슷했다.

연령대별 분석에 따르면, 북미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었다([표 1] 참조). 이 경향은 20대(65.4%)와 60세 이상(63.1%)에 비해 30~50대에서 더 뚜렷했다. 그 중에서도 40대는 82.5%가 북미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30대 77.8%, 50대 72.6%). 이념성향별로도 북미회담에 대한 평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진보는 대다수인 84.7%가 북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중도와 보수는 각각 67.1%, 63.2%가 긍정적으로 봤다.

7.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8년 6월 18~20일).

[표 1]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북미 정상회담 평가⁸ (단위: %)

		긍정적	부정적
전체		71.8	21.5
연령대	20대	65.4	29.3
	30대	77.8	17.6
	40대	82.5	14.5
	50대	72.6	20.4
	60세 이상	63.1	25.0
이념성향	진보	84.7	12.2
	중도	67.1	26.0
	보수	63.2	30.8

흥미로운 점은 모든 이슈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여겨지는 20대 여성이 상대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가장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고, 안보 이슈에도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보였던 20대 여성은 59.7%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답했다. 이는 20대 남성의 70.5%가 북미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2. 북한의 비핵화

6. 12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의 시한, 로드맵, 검증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담 직후(13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20년까지 주요 비핵화 조치가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시만해도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즉 앞으로 2년 6개월 내 비핵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6월 25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⁹ 사실상 2주 만에 북한의 비핵화 시한에 대한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을 살펴봤다.

8.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8년 6월 18~20일).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내 여론은 낙관적으로 바뀌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부정한 응답(‘북한은 비핵화되지 않을 것’)이 회담 전(3월) 23.7%에서 회담 후(6월) 10.2%로 13.5% 포인트 줄었다. 또 ‘모름/무응답’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유보한 응답도 회담 전 20.5%에서 회담 후 14.5%로 6% 포인트 감소했다([표 2] 참조). 북한의 비핵화에 비관적이거나 의견을 유보했던 응답자가 동시에 줄어든 것이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에 소요될 기간을 추정한 응답자는 회담 전(3월) 557명에서 회담 후(6월) 753명으로 늘었다([표 3] 참조). 이는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로 인해 한국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 낙관적으로 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¹⁰ (단위: %)

	회담 전 (3월)	회담 후 (6월)
비핵화되지 않을 것	23.7	10.2
의견 유보	20.5	14.5
사례수(명)	443	247

추가로 북한의 비핵화 소요기간에 대한 한국인의 응답(추정치)을 분석했다.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여론이 바뀌었음에도, 한국인은 북한의 비핵화에 향후 6.5년(평균)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표 3] 참조).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밝혔던 비핵화 시간표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회담 전(10.9년)에 비하면 4년 이상 짧아진 것으로, 북미회담이 한국인의 비핵화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 것도 다른 요인이었다. 북미회담을 계기로 비핵화에 대한 인식이 다소 개선됐지만, 북핵 문제가 20년 이상

9. Labott, E. 2018. "Pompeo says no timeline on North Korea negotiations", *CNN*, June 25, 2018. <https://edition.cnn.com/2018/06/25/politics/pompeo-exclusive-north-korea/index.html> 이 보고서는 6월 18~20일에 진행된 조사결과를 이용했기 때문에 비핵화 시한에 대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10.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조사기간: 2018년 3월 21~22일, 6월 18~20일). [표 2], [표 3]에 제시된 내용은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선생님께서도 북한의 비핵화는 향후 몇 년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에 대한 개방형 응답(open response)을 분석한 결과였다.

지속되어 온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은 앞으로도 여기에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북한의 비핵화 소요기간에 대한 의견은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로 달랐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젊은 층이 회담 후에도 북한의 비핵화에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6년 미만이라고 답한 40대 이상에 비해 20대는 8.5년, 30대는 7.5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회담 전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연령대는 50대였다. 회담 전(3월) 16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 달리, 6월에는 5.7년으로 10년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응답자가 북한의 비핵화에 비교적 짧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향은 회담 후에도 이어졌는데, 진보는 북한의 비핵화 기간을 6년으로 추정했다. 보수, 중도는 각각 7년, 6.8년으로 그보다 약간 길었다.

[표 3] 북한의 비핵화 예상 소요기간¹¹ (단위: 년)

		회담 전 (3월)	회담 후 (6월)
전체		10.9	6.5
연령대	20대	12.5	8.5
	30대	9.6	7.5
	40대	9.9	5.6
	50대	16.0	5.7
	60세 이상	5.6	5.5
이념성향	진보	7.7	6.0
	중도	15.0	6.8
	보수	10.0	7.0
사례수(명)		557	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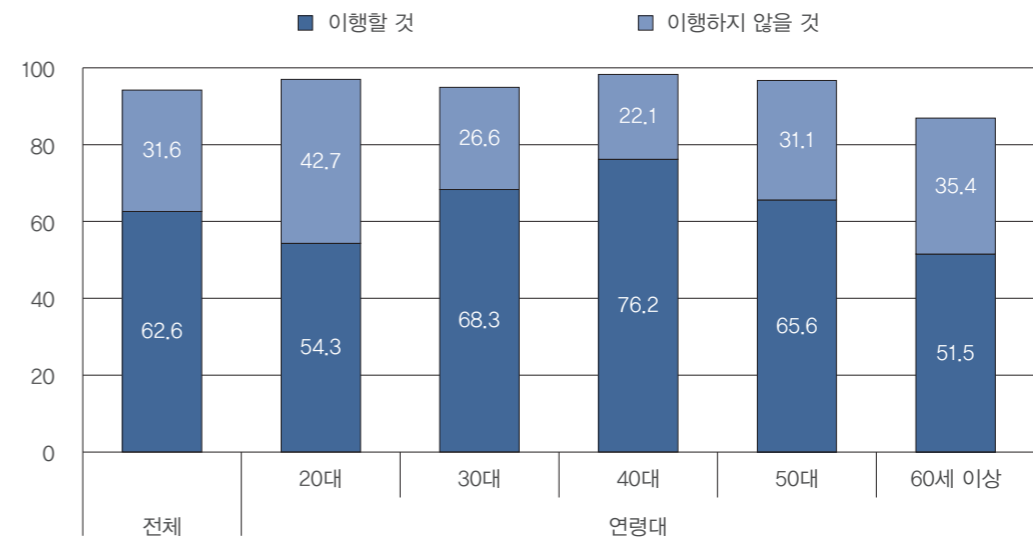
11.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조사기간: 2018년 6월 18~20일).

3. 북한의 합의 이행

이번 북미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프로세스의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북미간 합의가 얼마나 잘 이행될 것으로 내다봤을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과 합의한 사항을 잘 이행할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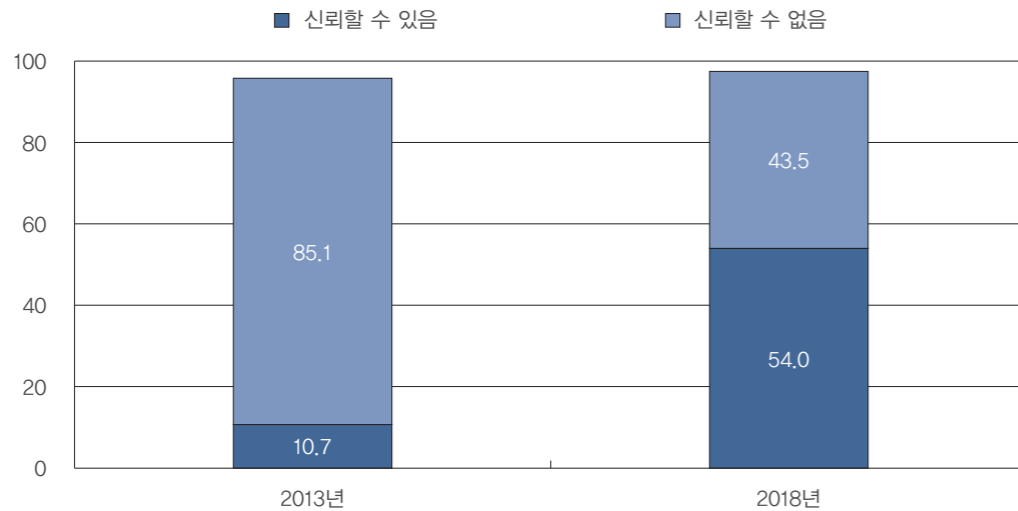
많은 한국인은 북한의 합의 이행을 낙관했다. 62.6%가 북한이 합의를 잘 이행할 것으로 내다 본 반면, 합의를 잘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 비율은 절반 수준인 31.6%에 그쳤다 ([그림 4] 참조).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이 북한의 합의 이행을 낙관적으로 봤다. 40대는 76.2%가 북한이 합의를 잘 이행할 것으로 봤는데,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30대(68.3%), 50대(65.6%)의 순이었다. 2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54.3%, 51.5%로 북한의 합의 이행 전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북한이 합의를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림 4] 연령대별 북한의 합의 이행 전망¹² (단위: %)



12.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8년 6월 18~20일).

[그림 5] 대북 신뢰도: 대화상대로서의 북한¹³ (단위: %)



북한의 북미합의 이행에 대한 전망은 대북 신뢰도와 관련이 있었다. 6월 북미회담 후, 북한을 대화상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결과는 2013년과 비교해 크게 달랐는데, 회담 이후에는 응답자의 54%가 북한을 믿을 수 있다고 답했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었던 2013년과 비교했을 때 43.3% 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였다([그림 5] 참조). 반면에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은 43.5%로 적지 않았지만, 2013년(85.1%)에 비하면 41.6% 포인트나 감소한 것이었다.

대북 신뢰도 전반에서 나타난 변화는 북한이 올해 초부터 대북제재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화에 적극 나섰고, 국제 외교무대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등장하면서 북한의 이미지가 개선됐기 때문이었다. 또 개성공단 일시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었던 2013년 당시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이 두 차례 만난 것, 북한이 비핵화 조치 즉 핵 미사일 발사 중단, 핵 실험장 폐쇄 등을 한 것도 대북 신뢰도를 반전시킨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즉 많은 한국인은 북한과 조심스럽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있었고, 북한이 북미합의를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13.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3년 5월 8~10일, 2018년 6월 18~20일).

Ⅲ. 북미 정상회담 이후 주요 이슈

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베를린 구상에서 ‘선 평화, 후 통일’을 대북정책 기조로 밝혔다. 이후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베를린 구상은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도발로 인해 효용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초부터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서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됐고, 남북 정상회담(4. 27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탄력을 받고 있다.

다수의 한국인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72.3%가 만족한다고 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3 수준인 23.6%였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723명)는 42.2%가 남북교류의 재개 가능성이 생겨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에 대

[표 4]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하는 이유¹⁴ (단위: %)

이유	비율
남북간 교류의 재개 가능성이 생겨서	42.2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서	25.8
남북, 북미대화 개최라는 성과를 내서	16.6
전반적 정책 기조에 동의해서	12.4
기타	1.4
사례수(명)	723

14.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조사기간: 2018년 6월 18~20일).

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응답이 2순위 이유로 꼽혔지만 25.8%로 차이가 컸다([표 4] 참조). 이는 북한 문제를 보는 한국인의 시각이 국내외 전문가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즉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비핵화와 CVID에 방점을 둔 것과 달리, 상당수의 한국인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중시했다.

많은 한국인은 북한 이슈를 '북핵'에 한정하지 않고, 남북교류나 한반도 정세 안정 등으로 확장시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절하했던 많은 전문가와 달리, 한국인이 북미 정상회담에 높은 점수를 준 이유로도 보인다. 비록 합의문에 CVID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북미회담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고 그것만으로도 회담이 성공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에서도 드러났다.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4.6%나 되는 한국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80%가 넘는 응답자가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 다시피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럼에도 많은 한국인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한국 전쟁과 분단의 상흔이 남아있는 과거에서 벗어나, 역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뼈아픈 한국 역사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표 5] 연령대별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¹⁵ (단위: %)

		필요	불필요
전체		84.6	11.9
연령대	20대	88.5	11.1
	30대	88.7	10.8
	40대	89.2	9.4
	50대	82.5	14.1
	60세 이상	77.5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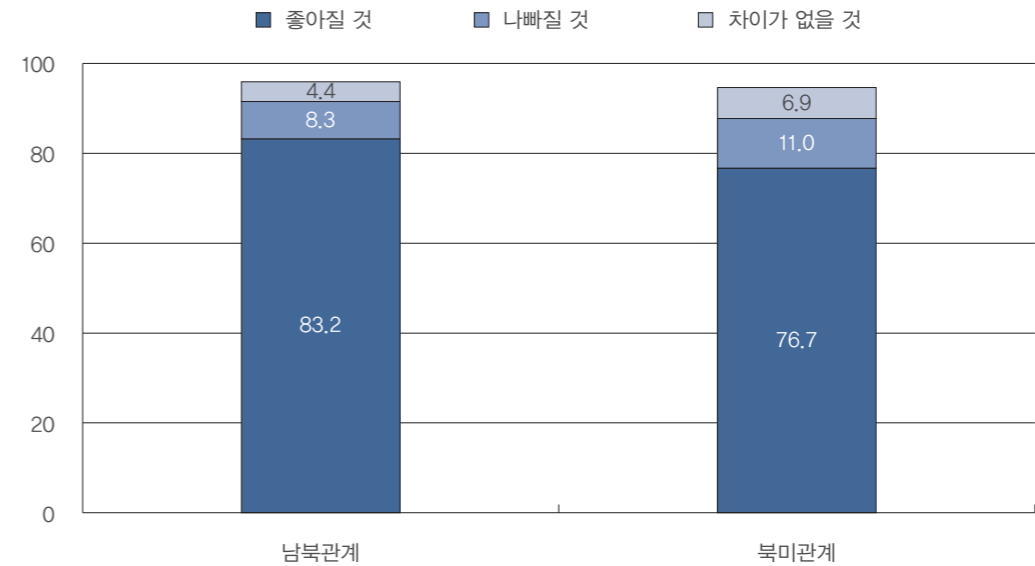
15.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조사기간: 2018년 6월 18~20일).

2.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적대관계에 있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최초로 만났다는 점, 회담에서 두 정상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점은 향후 북미관계에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사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대북 신뢰도가 개선된 점은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인은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북미 정상회담 후, 한국인의 83.2%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관계를 비관적으로 내다 본 비율은 두 자릿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8.3%였다.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4%로 매우 적었다.¹⁶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지난 몇 년간 악화일로에 있었던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하더라도 6월 남

[그림 6]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¹⁷ (단위: %)



16.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조사기간: 2018년 3월 21~22일). 전반적으로 진보가 보수에 비해, 젊은 층이 고령층보다 남북관계를 더 낙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보수에서도 77.6%가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17.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조사기간: 2018년 6월 18~20일).

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3월(66.4%)에 비해 16.8% 포인트 더 늘었다. 반면, 비관적 전망은 6월 8.3%로 3월(16.6%)의 절반 수준이었다.

북미관계에 대해서도 다수인 76.7%가 이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향후 북미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은 11%로 긍정적 전망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9%였다. 이는 북한과 미국 두 정상 만남이 갖는 상징성이 워낙 컸기 때문이었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의 개최 등이 구체화된 것도 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 다른 요인이었다.

3. 향후 과제

앞서 살펴 봤듯이 이번 6월 조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호감도는 크게 상승했다. 이는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불과 수 개월 전만 해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사회담, 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이 있다.

다수의 한국인이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연령대별로는 시각차가 존재했다. 특히 안보 이슈에 보수적 태도를 보여 온 20대(남성)는 화해 분위기를 환영하면서도 여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20대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낮은 호감을 보였고,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었다. 또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으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먼저 최근 북한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20대의 호감도는 3.95점으로 다른 연령대뿐 아니라 60세 이상(4.20점) 보다 낮았다. 이 경향은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에서도 동일했는데, 4점 이상을 기록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는 3.00점으로 60세 이상(3.71점)과 함께 3점대에 머물렀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20대의 평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덜 긍정적이었다. 20대는 65.4%가 성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60대 이상(63.1%) 다음으로 낮았다([표 1] 참조).

[표 6] 연령대별 북한 및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¹⁸ (단위: 0~10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전체		4.71	4.06
연령대	20대	3.95	3.00
	30대	4.88	4.05
	40대	5.45	5.06
	50대	5.09	4.42
	60세 이상	4.20	3.71

또 20대는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20대는 54.4%가 북한을 대화상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20대에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 비율(44.1%)은 60세 이상보다 더 낮았다(신뢰할 수 있다 49.4% vs. 신뢰할 수 없다 45.5%). 향후 북한의 합의 이행에 대해서도 20대는 어느 연령대보다 더 높은 42.7%가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60세 이상 35.4%)으로 봤다([그림 4] 참조).

젊은 층의 '안보 보수' 성향은 비핵화 시한에 대한 전망에서도 드러났다.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추정한 응답자(753명)는 평균 6.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는데, 20대는 8.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표 3] 참조). 이들은 어느 연령대보다 북한의 비핵화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에 대해서도 20대가 가장 부정적이었다([표 7] 참조). 20대 중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찬성한 비율은 39.1%로 가장 낮았고, 반대한 비율은 58.4%로 가장 높았다. 같은 안보 보수층으로 알려진 60세 이상에 비해서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부정적으로 봤다(찬성 43.9%, 반대 47.2%).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됐지만 젊은 층은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18.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조사기간: 2018년 6월 18~20일).

[표 7] 연령대별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의견¹⁹ (단위: %)

		찬성	반대
전체		51.9	44.2
연령대	20대	39.1	58.4
	30대	57.9	41.1
	40대	61.7	36.9
	50대	58.1	37.8
	60세 이상	43.9	47.2

20대의 북한에 대한 불신, 유보적 평가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한반도 긴장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었다. 본원의 2017년 연례조사²⁰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20대는 57.4%로 60세 이상(64.4%) 다음으로 많았고, 그 중 24.2%는 이유를 북한이 무력통일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20대는 60세 이상과 동일하게 62.7%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20대가 6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 전쟁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점, 그 원인을 북한의 무력통일 의지에서 찾았다는 점은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젊은 층의 안보 보수화는 본원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통해 수 차례 보고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20대 남성의 보수적 안보관이 뚜렷했는데, 여기에는 군 복무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새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게 된 이상, 문재인 정부는 20대의 대북 인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동안 단절됐던 인적 교류, 문화 및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이들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신뢰를 쌓도록 유도해야 한다.

19.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조사기간: 2018년 6월 18~20일).

20.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2017년10월 19일~11월 14일).

나가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6. 12 공동성명은 부실한 합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6월 북미회담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많은 한국인은 북미 정상회담을 프로세스의 시작으로 보고 있었다. 북미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다수의 한국인은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이 북미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었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많은 한국인이 두 정상회담이 갖는 상징성에 큰 의미를 부여한 만큼,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아직까지 가시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북미간 후속 논의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질적 성과를 보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많은 한국인이 필요성에 공감한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 체결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 신뢰가 견고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북미간 대화에서 뚜렷한 진전이 나오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실망감은 매우 클 것이다. 즉 향후 북한이 비핵화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어느 방향으로든 바뀔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이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 외교 이벤트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미회담 전후로 펼쳐진 김정은의 매력 공세가 한국인의 대북 인식을 반전시킨 주 요인이었다는 점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앞으로 정부는 한반도 평화 무드를 이어가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북한의 구체적·실질적 호응을 이끌어내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 정세 안정의 모멘텀을 지속시키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평화공원 조성 등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남북이 소통을 지속하고 있고 4. 27 판문점 선언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는 젊은 층의 대북 인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익숙하고, 단절된 교류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젊은 층이 북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대북, 통일 이슈 등에서 젊은 층에게 민족 정체성을 강조한 접근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평창올림픽 단일팀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미 드러났다. 새로운 동북아 및 한반도 시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젊은 층의 대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록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각주 참고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8\%$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7년 10월 19일~11월 14일
 실사기관: 칸타퍼블릭

[표 1] 북미 정상회담 일지

시기	주요 이슈
3월	9일 트럼프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향' 발표
	26일 첫 북중 정상회담(베이징):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비밀 방북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을 "5월 또는 6월 초 만날 것"으로 공개 표명
	27일 2018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합의
5월	7일 2차 북중 정상회담(다롄)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2차 방북(북미 정상회담 조율)
	10일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 귀환 트럼프 대통령,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
	12일 북한 외무성,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식 발표
	16일 북한,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에 반발하며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22일 한미 정상회담(워싱턴)
	24일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외신 취재단 참관) 트럼프 대통령 공개서한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취소
	26일 남북 정상회담(판문점 통일각)
	27일 성 김-최설희 북미 대표단 1~6차 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간 회담(뉴욕)
6월	1일 김영철 부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예방: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
	4~5일 백악관, 북미 정상회담 12일 오전 9시 개최 발표(센토사섬 카펠라 호텔)
	11일 성 김-최설희 북미 대표단 7차 실무회담
	12일 북미 정상회담(싱가포르)

* 국내외 주요 언론의 보도내용을 참고해서 저자가 재구성함.

ASAN
REPORT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발행일 2018년 7월

지은이 여론연구프로그램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195-9 93340 비매품



9 791155 701959 93340
비매품
ISBN 979-11-5570-195-9